

광양 중마권 행정·상업·교육중심지 발돋움

2030년 인구 10만명 목표 성황·마동지구 등 도시개발 박차 도로·편익시설 늘려 정주기반 구축...전남 제1 경제도시 육성

광양시의 중심지역인 중마권이 행정·상업·교육도시로의 제2도약을 꿈꾸고 있다. 광양시는 '2030년 광양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편익시설 확대와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통해 중마권을 인구 10만5000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이를 위한 밑거름으로 성황지구, 마동지구, 광영·태인지구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황근린공원 관통하는 도로 개설 = 오는 2020년까지 사업비 900억원이 투입되는 성황근린공원은 올해 1구역 못골마을의 보상을 마무리하고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공사가 시작된다. 광양시는 또 총 400억원을 들여 성황공원을 관통하는 금광아파트~성황지구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며, 올해에만 100억원을 투입해 터널 공사에 들어간다.

광양시는 이와 함께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이 지난 2일 전남도로부터 승인·고시됨에 따라 오는 4월 도시개발사업 공사에 착수한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성황동과 도이동 일원 65만4761㎡에 사업비 1147억 원을 투입해 3071세대 798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주기반을 구

축하는 사업이다.

◇마동근린공원 지역하파로 조성 = 광양시는 미래 인구 10만명의 힐링공간이 될 마동유원지 내에 총 30억원을 투자해 음악분수대를 설치한다. 마동유원지는 사방에서 관람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분수대 설치를 통해 예술 중·고·대학교 설립 및 주변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마동근린공원' 2단계 사업으로 32억원을 투입해 둘레길을 조성한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마동근린공원~마동체육공원~마동유원지 사이를 출렁다리로 연결해 관광코스로 개발할 방침이다.

◇소외된 골약동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유치 = 오랫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골약동은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유지에 뛰어들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은 거주환경개선, 생활기반시설확충 등에 총 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 및 예비계획수립용역 등을 통해 오는 9월 공모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광영·태인동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시재생사업 추진 = 시는 지난 2000년 이후 침체하고 있는 광영동에 총 120억



광양시가 중마권을 인구 10만5000명이 거주하는 행정·상업·교육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시 중마동 전경. <광양시 제공>

원을 투자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축구도시,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상권을 회복해 나갈 방침이다.

태인동은 총 500억원이 투자되는 명당3지구기반시설조성, 복합문화센터, 공원조성 등 도시재생사업을 올해 4월 공모신청하고 오는 9월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광양시의 계획이다.

◇중마동자치센터 준공·디자인시범거리 조성 = 광양시 행정도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중마동자치센터가 총사업비 58억원

을 들여 교육장, 취미교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이달말 준공된다.

옛 동광양시 행정 중심지였던 중마동은 지난해 8월 '디자인 시범거리사업'에 선정돼 2018년까지 20억 원을 들여 경관조명, 벽면정비, 간판정비 등으로 침체한 상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정은태 광양시 도시과장은 "행정의 중심지인 중마권을 인구 10만 명이 정주할 수 있는 도시로 조성하고 전남 제1의 경제도시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LF스퀘어 지역협력사업 이행 차질없게”

정현복 시장, 창의예술고·세풍산단 등 현안 점검 강조

정현복(사진) 광양시장이 2월 확대 간부회의에서 지역 내 주요 현안사업을 공유·점검하고 해결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 시장은 지난 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개정된 'LF스퀘어 테라스물광양점'을 비롯한 (가칭)창의예술고등학교 건립,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및 기반시설(도로·수도) 조성사업 등의 추진상황을 언급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정 시장은 또 간부 공무원들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조성사업과 와우지구, 광영·도이지구, 성황·도이지구, 목성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등 급속진척한 현안사업을 논의했다.

정 시장은 “LF스퀘어 테라스물 광양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난 해소와 주변 도로 정비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LF측에서 시와 약속한 지역협력사업 5개분야 22개 사업에 대



해 각 부서별로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또 창의예술고등학교 건립과 관련해 “향후 커뮤니티센터 주변에 예술중학교를 함께 설립하고 커뮤니티센터에 예술관련 대학을 유치해 그 주변을 예술교육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당초 건립계획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시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할 얻어 시가 목표하는 2019년 3월 개교가 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 시장은 이어 “광양 도시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와우지구, 광영·도이지구, 목성지구 등 택지개발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때 가능하다”며 “차질 없는 추진과 택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이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 매화 꽃망울. 광양시 진상면 탄치마을에서 매화꽃이 입춘을 지나면서 꽃망울 터트렸다. <광양시 제공>

중마시장에 공동판매장·아트조형물

정월 대보름 맞아 새 단장...4억 투입 골목형시장 육성

시민 화합 한마당 축제도

광양시가 정월 대보름을 맞아 중마시장을 시민의 소비기호에 맞게 새롭게 단장하고 시민화합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

시는 지난해 중소기업이 주관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중마시장에 국비 2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총 4억4000만원을 투입해 커피숍, 특산품판매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판매장과 실내조명 개선, 아트조형물 설치, 야외벤치 등을 설치했다.

특히 공동판매장은 중마시장 상인회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운영하며, 중마시장 상인회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대보름축제는 11일 낮 12시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개회식과 공동판매장

테이프 커팅식, 고객화합 한마당 축제 순으로 진행된다.

고객화합 한마당 축제에는 전자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과 트롯트 신동 장송호가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 마술공연과 상인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로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문선용 광양시 시장관리팀장은 “이번 대보름 축제를 통해 새롭게 단장한 중마시장이 시민들에게 선보여 지역 주민들의 주요 소비처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중마시장은 ‘특성과 육성사업’이 완료되면 중마시장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위대한 제철소 만들자” 김학동 광양제철소장 취임

김학동(사진) 광양제철소장이 지난 6일 제철소에서 지역 포스코 패밀리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제철소장 취임식을 가졌다.

김학동 신임 광양제철소장은 이날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둔 광양제철소와 외주파트너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드린다”며 “위대한 광양제철소를 만들기 위해 'POSCO the Great'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소장은 또 광양제철소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위대한 제철소’로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추진할 세 가지 관점의 ‘고도화’ 추진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그 어떠한 공적도 안전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만큼 우리 모두 안전마인드를 재무장하고 안전활동을 체질화해 무재해 일터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면서 “만들어진 표준은 철저히 숙지하고 100% 준수하는 안전 역량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어떠한 상황에도 수익을 창출하는 광양제철소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곳곳의 낭비요소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실행해 낭비제로 통한 프로세스 고도화를 이루자”면서 “특히 지속적인 설비성능의 개선을 통해 강건한 설비와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고효율·무장애 설비를 구현하는 등 설비 고도화를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2대 김학동 소장은 지난 1984년 포항종합제철(주)에 입사해 제철부 엔지니어와 공장장 등을 거치면서 쌓은 제철기술 분야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포항제철소 제철부장, 품질기술부장, 광양제철소 선장담당 부소장, SNNC 대표이사, 포항제철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백운기 고교 축구대회 15일 개막...35팀 참가 열전

광양시는 “올해로 19회를 맞이하는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광양공설운동장 등 5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고 9일 밝혔다.

대한축구협회와 광양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남축구협회와 광양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35개 고교 축구 명문 팀들이 대거 참가해 고교 축구 최강을 가리게 된다.

대회는 15일 오전 10시 광양공설운동장에서 서울 양천고와 경기 능곡고

의 개막경기를 시작으로 예선전 조별 풀리그를 거쳐 18강전부터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우승팀에게는 우승금과 장학금이 지급된다.

광양시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각 경기장에 기록요원, 음료봉사, 들것, 볼 도우미 등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안전하고, 속박·음식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 지도와 경기장 주변 교통 정정차량 안내, 경찰활동 등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메디컬센터 | 분양 및 임대
순창터미널 맞은편

1층 약국, 제과점, 편의점 기타
2층 내과, 검진센터
3층 안과, 피부·비뇨기과
4층 치과, 이비인후과
5층 정형외과, 한방의학과
6층 물리치료실

대지면적 : 1,057㎡ 지상6층, 주차장 27대
1층 : 101호 129.5㎡(구 39평), 102호 137.6㎡(구 41평), 103호 83.4㎡(구 25평), 104호 129.5㎡(구 39평)
2층 : 201호 240㎡(구 72평), 202호 240㎡(구 72평)
3층 ~ 6층 : 2층과 동일

주소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13-5번지

(주)우원 (주)태우종합건설
(063) 653-7806

분양문의
010-4922-3317

광주·전남 大 山 프리모 남가발
기능장1호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기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